"이익추구 비판 큰 은행, 투명 금리산정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첫 17개 은행장 간담회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 대응방안 논의
예대금리 산정체계 등 철저한 준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대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당기간 금리·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반영하여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화유동성 수준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수출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면서 "또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행권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권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 유명순 씨티은행장 △ 권준학 농협은행장 △김진균 수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흥영 경남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tbiz.co.kr

한양, 올해 첫 공공공사 수주 1117억원
LH 성남복정1 A-2BL 등 시공사 선정

한양이 올해 첫 공공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한양은 한양 컨소시엄이 LH 발주 '성남복정1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양 컨소시엄은 한양이 70% 지분을 갖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7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조성으로 총공사비는 1117억원 규모다. A-2BL은 연면적 3만1992㎡에 387세대 7개 동, 전용면적 46㎡, 55㎡ 2개 타입이다. A-3BL은 연면적 2만5260㎡에 315세대 6개 동,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이다.

한양은 주택사업에서 올해 3월 서울, 인천 등에서 도시정비사업 2건을 수주했다. 지난달엔 경기 여주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주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수주 다변화를 통해 민간도급, 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첫 공공공사 수주를 따냈다. 앞으로도 착실히 수주 실적을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tbiz.co.kr

한양 컨소시엄이 수주한 성남복정1 A-2BL 예상 조감도. 한양 제공

김동연 당선인, 숙식은 사택에서… "경기도지사 공관, 도민과 소통 공간 활용"

근대문화유산 보존… 만남의 장소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될것 기대"
예산 지원없이 사비로 주거지 유지

경기도지사 공관이 도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공관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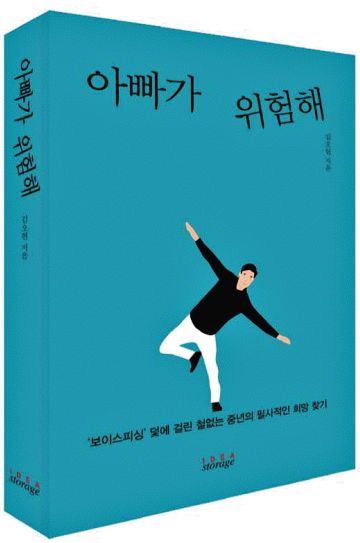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은 1967년에 건축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김 당선인측은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났던 브라운 백 미팅과 같은 형태로 경기도 내 청년, 대학생, 농민, 취약계층 등 다양한 도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도지사 공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2015년부터 2년여 간 아주대 총장 재임시절, 총장 집무실을 학생들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한 바 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20여 명 정도의 재학생이 대화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장과 자유롭게 이야기 했다.

공관의 공적 목적 사용 방침에 따라, 김 당선인은 앞으로도 도의 예산지원 없이 사비로 주거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동연 당선인 제공



'보이스피싱' 덫에 걸린 철없는 중년의 필사적인 희망 찾기

빚보증 · 사업 실패 ·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아빠에게 희망의 반전은